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11강 그리스도의 수난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은 제자들의 일치인데,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모델로 한 교회로서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2.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8-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공부하겠습니다.

3.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1) 요한복음 수난사화에서 예수는 왕적 혹은 신적 메시아다.
- 2) 그리스도의 수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 3)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은 교회다.

II. 요한복음 수난사화에 나오는 메시아의 성격

1. 멜깁슨이 감독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보셨나요?

-이 영화는 예수 수난의 실재(reality)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증에 의해서 당시의 모습과 특히 예수가 겪는 수난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수난이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유관순 열사의 고통과 죽음과 예수의 수난은 무엇이 다른니까?

2. 각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를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4-6에 나오는 종을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승리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제시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막 8:31).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막 8:32) 여기에 사용된 동사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막 8:33). 같은 동사를 번역자가 문맥에서 두 가지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메시아 관을 두고 심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준엄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23절)

-우리는 보통 '예수의 수난'하면 고난당하는 중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난의 코드는 수치요 슬픔입니다.

-요한복음의 수난사화도 그런 코드인가요?

3. 요한복음 수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가 왕적(혹은 신적)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1)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난은 고난당하는 중이라기보다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 왕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이 길을 기꺼이 갑니다 (10:17-18).

2)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수난을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본 것입니다.

III. 요한복음의 예수의 수난사화(18-19장)

1. 예수가 체포되다(18:1-11)

1절. "이 말씀들"--고별설교 말씀.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 할 차례가 된 것이다. 수난은 예수 생애에 수치가 아니라 클라이맥스였다. 수난 없는 예수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고전 1:23)

4절.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닥칠 일(the things to come)을 다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앞에 닥칠 일을 다 아신다. 2:23-25.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신다.---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곧 예수는 신적 메시아라는 것.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예수의 주도권.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체포될 사람이 오히려 상황을 장악하고 있음.

5절. "내가 그니라"---"바로 나다."--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이것은 출애굽기 3:14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다. ---곧 예수님이 신적 본질이 있다는 말이다

6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인간들의 반응이다. 예) 다니엘서 10:9--"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일반 체포 장면과 반대.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섬. 예수님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겐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12:27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잔, 즉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는 면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더 결의에 찬 모습이다. 10:18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15절)...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18절)"

2. 예수가 전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심문받다(18:12-27)

13절. 먼저 예수를 안나스에게 끌고 감. ---안나스는 본래 주후 6-15년에 대제사장을 지냈다가

면직되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지냈고, 당시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군력은 막강했다. 현직 대제사장 대신 자신이 예수를 심문할 정도였다. 19절. 여기서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리킨다. 그는 전직이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20-21절, 23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왕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예수는 왕이었다.

=공관복음서의 동일 장면에서는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들이 생략되어 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장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24절. 결국 안나스는 예수의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야바에게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야바가 예수를 심문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를 심문한 것은 몇 가지 면에서 불법적이었다. 1) 밤에 예수를 심문한 것. 2) 예수 측 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 3)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로마인에게 넘겨준 것.

15-18절; 25-27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장면이 예수가 심문받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공관복음보다는 자세하지 않다. 그가 우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예수는 재판관을 받고 있고, 제자는 그를 배반한 것이다. 예수는 왕으로 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3. 예수가 빌라도에게 심문받다(18:28-19:16a)

1) 빌라도의 심문(18:28-38a)

28절. 관정---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 새벽: 오전 6시경. 더럽힘---유대인의 정결례법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는 것이 있었음. 곧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례를 하려면 번거로움.

29절. 빌라도--주후 26-37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음.

31절.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유대인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 적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회수된 상태임.

32절. 어떤 구절이 응한 것인가? 요 12:32-33.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

33절. 유대인의 왕---신구약 중간기 대제사장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

34절. “네 나라(ethnos)”--여기서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민족”을 가리킴.

35절. “내 나라”(my Kingdom<basileia>)--예수가 곧 왕이라는 뜻.

38절. “진리가 무엇이냐?”--심문하는 자에서 질문하는 자로 전락.

2) 빌라도와 유대인들과의 대화(18:38b-19:16)

1절.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함---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놓아주려고 하는 행동.

2절. 자색 옷---왕이 입는 옷 색깔.

5절. 보라 이 사람이로다---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겠느냐?”하는 것; 요한의 입장에서는 “보라 참 사람이로다”라는 뜻.

7절.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레위기 24:16. “여호와와 이름의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유대법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예) 시 2:7

9절. 너는 어디로부터냐---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말. 어디로부터냐가 중요.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8:44)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가 빌라도에게 해야 할 질문이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질문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10절. 빌라도의 위협---강아지는 위협하기 위해 짖는 것인가? 무서워서 짖는 것인가?: 빌라도는 무서워서 오히려 예수를 위협.

11절. 빌라도의 책임과 유대인들의 더 큰 책임.

12절. 가이사의 충신--문자적으로는 가يس아의 친구. 친구의 대척어는 적. 그래서 우리말로 가يس아의 충신은 좋은 번역이다.

13절. 간 뜰--포장된 도로.

14절. 제 육시--정오.

16절. 이에--정치적 판단.

==예수는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본래 수치가 아니다.

4. 예수가 십자가를 지다(19:17-30)

1) 십자가형에 처하다(17-22절).

17절. 그들이---대제사장들(15절). 실제로 십자가형에 처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다(18절).

20절. 삼개국어---올림픽 장면이 연상됨. 이것이 어떤 행사, 사건이라는 뉘앙스.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빌라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왕으로 인정되는 준비위원장(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함.

2) 십자가상에서(23-27절)

23-24절. 철없는 로마 군인들의 행동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25절. 군인들과 여인들의 행동이 비교되어 있음. “군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반면에...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26-27절. 효도인가? 제자도인가?: 단순한 효도라고 할 수 없음. 예수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 여인은 예수가 여성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 요한복음에서 애제자와 예수의 어머니는 모두 익명으로 나오면서 모델 제자임. 곧 모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곧 교회 형성을 뜻한다. 그것은 곧 예수 왕국인 것이다.

3) 예수의 죽음(28-30절)

28절. 그 후에---애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께 맡긴 모든 일. 그 끝은 제자 공동체 형성. 예수는 자신의 길을 알고 갔다. 이것은 보통 인간의 길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길이었고, 신적 메시아의 길이였다.

30절. 다 이루었다---다 이루어졌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그가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돌려주었다; 건네주었다). ---죽음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의미.

5. 예수의 장례(19:31-42)

31절.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유월절 시작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밤새 시체를 달아 놓은 유대인들에게 옳지 않은 일(신 21:22-23).

34절. 피와 물--예수의 인성.

36절.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구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 묘사한 출애굽기 12:46이 가장 적절.

38절. 아리마다 사람 요셉.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으로 나온다.

39절. 백 리트라---약 백 근. 매우 많은 양. 왕의 장례를 암시. 예) 아사왕이 죽었을 때의 장례.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해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를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분향하였더라.”(대하 16:14) 예2) 헤롯왕이 죽었을 때도 500명의 노예가 향을 들고 장례에 참석(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7.199).

IV. 해석과 적용

1. 예수의 수난은 영광

1)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수치나 비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은 영광이다.
-요한복음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수난도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 받는 것, 들려올려지는 것이라는 말로 예수의 죽음을 표현한다.
-7:39,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
-12:16,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
-12:23,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음을 가리킴.
-12:32,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 19:30.

2)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길 자체가 영광이었던 듯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 우리는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스칸달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고전 1:23), 메시아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24).
-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삶에서도 되어야 합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그 왕국에 속해서 그 왕국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21에 있는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 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행동은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행동을 하고(8:44),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5:18).

V. 나가는 말

1.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수난을 예수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위안이 되는 신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히 2:10-18; 4:14-16).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수치와 실패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예수의 수난이 고통 그 이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수난사화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수난은 결국 예수가 영광 받은 자, 승리자,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됩니다.

2.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난사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에 의한 예수의 수난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리고 있는 것은 공관복음의 수난 신학을 섞어서 예수의 육체적 수난의 실재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사역의 의미의 핵심을 형성하는 예수의 수난보다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멜 깁슨의 영화는 복음서에서 예수 수난의 위치를 정 위치 시키도록 사람들에게 수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했다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 복음서가 예수 수난에 대해서 묘사하는 전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한 수난사화는 멜 깁슨의 영화가 바라보지 못한, 다른 관점에서 수난을 해석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수난의 의미를 더 넓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3.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0-21장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